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1주일 (예수 성심 성월)
제27권 29호 (다해) 2007.6.17

[묵상]



사랑의 깊이

눈물로 발을 적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 지극한 사랑
걸어서 몸으로만 살아온 고단한 삶에
사랑의 깊이만큼 용서받고 구원얻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반찬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동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4단계 7월10일까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반찬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Organ Donor를 위하여 항지엄 요셉
	(생) 이상용 엘리야, 김풍길 바오로
주 일 낮 미사	(연) 이재우 마티아, 김인석 요셉, 신현구, 손석조 마리아 양갑순 마리아, 천서인 레지나, 김형진, 김인영 베드로 김창배 파스칼,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생) 이필주 바오로, 이봉림 안나, 김형미 데레사, 박테레사 최기남 야고보, 이종민 요셉, 오세덕 가정 변세연 안드레아 & 혜경 올리안나, 김상근 바오로 가정 안재성 가브리엘 & 애림 가비나 가정 황인협 프란치스코 & 경희 크리스티나 가정 주현우 가브리엘라 가정, 토렌스 서구역 아버지들을 위하여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 12,7ㄱ-10,13

화답송 ◎주여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전례성가 81 연중 제11주일 C해>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진 이여
주께서 타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 감추며
주님께 내 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 제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도다.◎
◎당신은 내 피난처 곤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님안에 기거하고
주님안에 즐거워하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라.◎

제 2독서 갈라티아서 2,16.19-2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도다. ◎

복음 루카 7,36-8,3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312
봉헌	270	268
성체	377	309, 295
파견	394	226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10) ✧

집전 사제가 말했다. "...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갑자기 나는 서로 포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에게서가 아니라, 매우 강렬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곧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내 옆 사람을 안았다. 나는 정말로 그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주님의 포옹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포옹하고 내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용서할 수 있었고,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몰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껴안고 우리에게 당신 평화를 주시면서 기쁨의 순간을 나눈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집전 사제가 영성체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대주교 옆에 있는 모든 사제를 주목했다. 대주교가 성체를 모실 때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집전 사제와 그를 보좌하는 모든 사제를 위해 기도할 때다. 나를 따라 하여라. '주님, 당신 사랑으로, 당신 사랑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소서.....'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사제를 기억하고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영혼과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때야말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이듯이 그들도 교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평신도들은 사제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않고, 사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독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제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돌봐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은 특히 우리의 존경이 필요하다. 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정말 완전히 봉헌했다.

하느님께서 사제에게 맡긴 사람들이 그들의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거룩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신다. 어느 날,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 우리 영혼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제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체를 모시러 나가기 시작했다. 위대한 만남의 순간, '영성체'의 순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잠시 기다려라. 네가 봐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내적 충동이 내 눈을 들어 어떤 사람을 보게 했다. 그녀는 막 자신의 혀 위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중이었다. 그녀는 우리 기도회의 부인인데 지난 밤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 미사 시작 전에 성사를 본 사람이었다. ◆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어제는 죄인 오늘은 성인

두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 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 나왔을 때 이번에는 둘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 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 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지?”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 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때니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예화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모르고 단지 죄인으로 유명한 ‘여인 한 사람’(요한 7,37)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죄 많은 이 여인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한 여인’으로 2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기억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여인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는 이 여인은 말도 없이 오직 행위로써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께 보여 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이 모습에서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용서’ 청하는 가장 겸허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래 위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당신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허히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의 죄인이 진심어린 참회로써 오늘의 의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과거 행실이 좋지 못했던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성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뉘우침으로 천국으로 초대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자비를 가족과 이웃 안에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미아3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우스딩	이진향 아네스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태훈 아우스딩	최진수 에우세비오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모은기 다두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1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전배형 베드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변혜경 올리انا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 V. 3반	제물봉헌자			토 서 2,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가정의 평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지난 주간 합계: 2,361단 총 합계: 138,556단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9일(금), 오전 8시30분 ◆ 주일학교 방학/개학 ● 개학: 9월30(주일) ※주일학생미사는 7월8일(주일)까지 있습니다. ◆ 주일 학교 Summer Camp 신청 ● Camp: 7월13일(금)~15(주일) ● Woodspring Wind, Julian, CA (Food, Cabin 제공됨) ● 캠프비용: \$102 (학생부담 \$70, 본당 보조 \$32 + Bus) ● 신청마감: 6월17일(주일)까지 ◆ 한국학교 방학/개학 ● 종업식: 오늘 주일 오후 1시, 강당 ● 개학: 9월9일(주일) ● SAT 모의고사 결과를 한국학교 교사실에서 배부합니다. ◆ 요셉회 정기총회 오늘 주일 낮미사 후에 있습니다. ● 모든 회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론 청년회 Father's Day 본당신부님과 함께 ● 6월23일(토) 특전미사 후, 강당 ● 청년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3일까지), 성전 ● 본당신부님 주일 강론 및 신앙학교 Cassette Tape이 사무실에 준비되었습니다.	

◆ 특별강연 ● 6월24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제목: 물의 신비와 가족의 건강 ● 강사: 박규현(라파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변상울(예로니모), (주)썬파이코리아 대표 ● 대상: 전신자 ◆ 신약성경 특강 ● 7월23일(월)~27일(금), 매일 저녁 7시30분 ● 제목: 요한복음과 바오로 서간 ● 강사: 손삼석(요셉) 신부, 전 부산가대총장, 성서학박사 ● 참가주 전신자	◆ 배론 청년회 12학년 졸업생 환영회 및 여름 피크닉 ● 6월24일(주일), 오전 9시 출발, 라구나 비치 ● 신청마감: 6월20일(수) ● 문의: 강정현 시몬 (323)899-5581 ◆ 남성 제 27차 푸르실료 교육 ● 6월28일(목)~7월1일(주일) ● 파견식: 오후 12시 ● 수강자: 배재일(미카엘), 서병교(라파엘), 천광락(야고보) ● 수강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6월17일: P.V. 1반 (육계장 \$3) ● 6월24일: 토렌스 서 1반 (열무보리밥 \$3)
◆ 환영합니다. ◆ ◆ 지난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서영주 시몬/ 호준 안젤라 (토렌스 서 1반) 자녀: 정우 프란체스코사베, 정진 요한, 정현 안드레아 ● 하청수 크리스피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순복	국세찬	김교복	김마틴	김병철	성전헌금	강순복	국세찬	김교복	김마틴	김윤진	김인열
	김상익	김용현	김운진	김인열	김정순	김형순		김정순	김형순	남명자	문영일	민소예	민찬기
	남명자	류인섭	문영일	민병숙	민소예	민찬기		박광자	신경훈	신현화	오기석	오세덕	오세원
	박광자	박진수	박태준	방정복	신경훈	신현화		유희연	이경용	이귀분	이석호	이정희	이효세
	오기석	오명섭	오세덕	오세원	유희연	윤석구		장수창	장영우	정규숙	정상봉	채양석	최의수
	윤혜미	이경용	이귀분	이석호	이일길	이정희		최진수	홍안나	김아가비도	이크리스		
	이효세	임 순	장수창	장영우	정규숙	정상봉		한길선례					
	조경림	채양석	최의수	최진수	홍안나	황철수							
	김아가비도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5,410												
미사헌금	\$ 2,988	성령세미나 파견미사	\$911	감사헌금	김상근	합계 : \$3,405							

남가주 소식

◆ 젊은이들을 위한 제17차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 6월28일(목) 오후 7시~7월1일(주일) 오후3시
- 테메큘라 꽃동네 피정의 집
37885 State Highway 79, Temecula, CA 92592
- 지도: 최석현 마르코 신부님
- 대상: 18세 부터 30 미만, 학생,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160 (6월20일 전까지) \$180
- 준비물: 성서, 묵주, 세면도구, 필기도구, 미사예물, 침낭, 손전등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봉사회 (KYCR)
- 연락처: John Cho (714)519-1550

◆ 2007 FIAT Family Mass (FIAT 가족미사) & BBQ

- 7월15일(주일) 오후 5시, 성 토마스 한인 성당
- 예약 문의: (714)702-9830

◆ 제16차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8월3일(금)~5일(주일)
- Mary Joseph Retreat Center
5300 Crest Rd., R.P.V., CA 90275
- 대상: 22~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 신청마감: 6월30(토) ● 참가비: \$150
- 문의: 남가주 선택 협의회 (714)713-0131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피정 안내

1. 제5차 Bible Camp

- 6월21일(목)~24일(주일)
- 대상: 8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지도: 유필립보

2. 제3차 Summer 영성 피정

- 8월16일(목)~19일(주일)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지도: 이유진 신부님
- ※신청문의: (951)302-3400

사람을 구합니다.

❖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합니다. ❖

- 7월 16일경부터 약 한 달 정도
- 연락처: (323)820-7727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6/8(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정기은 비오 618-9775 6/16(토) 오후 7시
	3	정정숙 레아 791-5696	정레아 791-5696 6/15(금) 오후 7시30분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주량 요한 782-8549 6/16(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크리스 아가톤 374-1572 6/15(금) 오후 7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6/12(화)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오창애 안나 326-1519 6/22(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리디아 938-3255 6/16(토) 오후 7시, 성당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6/15(금) 오후 6시, 회의실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김희복 아네스 326-2283 6/9(토), 약유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유근우 알렉시오 541-4305 6/22(금) 오후 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5(금) 오후 7시30분
	3	전애경 율리아나 541-5370	이문종 바오로 541-7860 6/15(금) 오후 7시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임엘렌 373-1690 6/5(화) 오전 10시30분

예수성심 대축일을 지내며...

있을 만하면 가끔씩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린이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기어이 폭행과 살해로 이어지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성추행과 연결된다면 정신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언론과 방송은 다투듯이 전문가를 내세워 이러한 범죄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조치들을 요란하게 제시하곤 합니다만 일회성일 뿐입니다.

정작 참담하게 말 못하는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비참하게 잃고는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아이도 어느 때와 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 올 거야.”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자녀들의 귀가를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부모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한 후 살해되었다는 비참한 소식입니다. 범죄행위가 자세히 보도되고 범인은 체포됩니다.

그 후 오랜 시간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고, 그러는 가운데 아픈 상처는 다시금 찢겨져 나갑니다. 처음으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살해한 범인을 만납니다. 부모의 눈길은 범인의 눈길을 찾으려 애를 쓰지만 그는 눈길을 아래로 내리깔고 얼굴을 가립니다. 재판장에서 최후선고가 내려지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범인은 감방으로 사라지고 부모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그들은 자녀를 빼앗김과 동시에 철저히 홀로 되고 맙니다.

1928년 성탄절 밤 한 남자가 사제관 문을 두드리고는 주방에서 일하는 봉사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주방 봉사자가 문 앞에 나와 자기를 찾아온 남자를 보고는 흠칫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다름 아닌 12살 된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벌써 26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것입니다. 출감하자마자 그 첫 걸음이 바로 자기가 죽인 어린 소녀의 어머니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소녀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합니다. 이 순간에 소녀의 어머니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녀는 범죄가 생기기 전에 벌써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라는 놀라운 대답을 그에게 해줍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은 성탄 밤미사를 보러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머니와 살인범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납니다. 1950년 바로 희생자인 마리아 고레띠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녀로 선포되는 시성식에서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범을 오직 하느님이 벌써 용서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인이 됩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선사합니다. 마리아 고레띠의 살해범인 알레산드로 세레넬리도 고레띠 어머니의 용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띠의 어머니 역시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에서 마침내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면...”이라는 어머니의 대답은 용서의 열쇠가 되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가장 추한 범죄자를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누구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허물이나 잘못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죄나 잘못을 그렇게 간단하게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죄나 잘못을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시도합니다. 미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움은 잘못을 고정시켜버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중한 범죄자는 오직 용서에만 의존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느님과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버립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어떠한 기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묶여버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라고는 단지 뉘우치고 후회할 뿐입니다. 죄로 인한 묶임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풀려집니다. 이렇게 용서는 언제나 하느님과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단순한 부인, 26년이란 긴 세월동안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고통스런 시간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바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그림은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성심은 역사 안에서 큰 공경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 성심 형제회와 예수 성심 금요일, 예수 성심 호칭기도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예수 성심 대축일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성심 공경에서 예수 성심을 위한 증거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것만으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사랑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용서를 청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요? 우리는 작은 것을 용서하는 데에도 주저하거나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용서의 반대인 미움과 무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은 새로운 시작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용서할 은혜를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힘을 선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성심 호칭기도에서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 최창덕 신부